

중국적 통치성과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의 형성:

베이징 모범촌 거주 중국 여성 농민공들을 중심으로*

김재석**

본 논문은 중국의 농촌출신 여성들이 도시지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생활과 노동과정을 통해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정체성의 형성은 “중국적 통치성”의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대 중국의 통치성은 사회주의 시기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의 전략과 “원거리 통제”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베이징의 한 모범촌에서, 촌 정부는 기존 경찰력과 “공안협조대오”를 기반으로 한 직접적·억압적 감시와 더불어 감시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일망감시체제를 통해 농촌 이주민들을 통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농촌출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차별적 감시와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불안정한 생활로부터 고통 받으면서도 도시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조사 대상 농촌출신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사도우미 직업의 상대적 “자유”와 배우자와의 “작은 행복”의 추구가, 이들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미혼의 시기에 종사했던 장기간의 공장노동을 통해 나타난 농촌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변화와 맞물려, 자기규율적, 순응적 노동주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을 밝힌다.

〈주요개념〉: 중국, 이주노동자, 통치성, 성중촌, 개인화, 자유

* 이 논문의 바탕이 된 현지조사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를 통한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인류학과 조교수

1. 서론

본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창출된 저임금·비숙련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여성들이 도시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임금노동에 종사하면서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농촌출신 여성 노동자들(이하 “여성 농민공”)은 10대 후반 도시로 이주하여 십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해 왔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직장과 일상생활을 통해 가족, 친족 혹은 이웃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향과는 다른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경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의식, 즉 정체성 혹은 주체성(subjectivity)의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는 정체성을 개인 혹은 사회 범주로서의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특정한 방식으로 호명(呼名) 또는 규정하고, 후자가 그 특정한 규정에 대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Althusser 1971: 118). 연구자는 분석 대상을 하급정부 관료와 도시 거주민들 및 고용주 그리고 여성 농민공들의 두 범주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지닌 전자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통해 여성 농민공들에게 차별적인 감시와 처벌의 기제를 적용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역할을 부과함으로써 자기규율적 주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농촌출신 여성들의 자기규율적 정체성 형성과 연관된 관리와 통제 기제의 작용은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여기서 통치성은 한 사회를 통치 가능하게 하는 근대적 기술과 전략의 총체를 말하며(Lemke 2001), 현대 중국의 통치성은 사회주의 또는 마오 시기의 감시와 무거운 처벌의 위협 그리고 집단적 동원의 수단이 지닌 직접적, 강제적 통제의 전략이 자아 혹은

자기규율의 기술(Foucault 1993: 203-204)과 자율적 규제에 대한 보상(報償)의 원칙을 내재한 주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개혁·개방 시기의 통치전략과 결합된 것이다(Greenhalph and Winckler 2005: 134; Rose 1999: 50).

연구자는 자기규율적 노동자 정체성의 형성을 억압적 통제의 기제와 “원거리 통제”를 결합한 “중국적 통치성”(Jeffreys and Sigley 2009: 5)이 개별화된 노동과정 그리고 중국사회에 만연한 “개인화”(Ong and Zhang 2008: 1-20; Yan 2009: 273-291)와 맞물려 낳은 결과로 접근한다.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마을에서, 촌 정부는 공안국(公安局)과 자체 치안조직(公安協管員隊伍)을 통해 농민공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공간의 요새화(fortification)를 통해 농촌출신 노동자들의 이동을 통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감시카메라를 통한 일망감시(Panoptic surveillance)체제를 확립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원거리에서 작동하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고 보다 자발적으로 규율을 따른 행동을 하게 하였다. 한편 자본주의 임금노동 관계에 기초한 가사도우미(家政服務員)의 개별화된 노동과정은 농촌 출신 여성들이 고용주와의 관계를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다른 노동자들과의 집단적 연대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이는 농촌 출신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은 행복(小快樂)”의 추구하고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의 자기규율적 혹은 순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중국의 통치성을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한 통제의 전략과 신자유주의 전략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여성 농민공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기규율적 주체성의 형성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효과로 접근하는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Yan 2003; 汪和建 2007). 특히 엔 하이룽(Yan Hairong)은 현대중국의 통치성을 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에 바탕한 임금노동의 경험

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이념 선전(propaganda)이 자기규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Yan 2003: 111-138). 순응적 주체의 형성을 자본주의적 임노동의 경험과 정부의 간접적 통제의 결과물로 보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사회주의 시기로부터 유래한 통제기제의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현대 중국에서의 순응적 혹은 자기규율적 주체성의 형성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사대상 농촌출신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 이들이 미혼의 시기에 경험했던 공장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도시지역 정부의 억압적이고 직접적인 감시와 차별적 정책,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및 거주 상태,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외지인(外地人)에 대한 경계를 감내해야 했다. 가사도우미의 개별화된 노동과정 그리고 여성 농민공들의 개인적 자유의 추구가 자기규율적 주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은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마을에서 관찰된 직접적 통제의 기제와 일망감시체제의 구축을 통한 중국식 통치성의 억압적 작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미혼 시기 장기간에 걸쳐 공장노동자로 일한 여성 농민공들이 결혼과 출산 이후 또 다른 형태의 도시 임금노동에 종사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상생활의 경험이 이들에게 초래하는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국 여성 농민공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 기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의 한 단면으로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노동자라는 주체성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공장체제(factory regime)¹⁾의 작동기제를 분석하고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Chang 2009; Kim 2013;

1) 공장체제는 작업장에서의 원활한 생산과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통제와 감시, 회유와 협조의 정치경제적 기제를 말하며, 관리자, 경영진, 노동자, 그리고 작업장 외부의 국가권력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 (Burawoy 1985: 87).

Lee 1998; Pun 2005). 이 연구들은 기숙사 중심의 공장체제(dormitory factory regime)가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감시와 처벌의 기제를 통해 농촌 출신 여성들에게 단순임금노동자의 정체성을 부과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들 여성 노동자들이 억압적 공장체제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분석한 반면, 결혼과 출산 이후에 겪게 되는 도시에서의 노동과 생활의 경험이 이들에게 초래하는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특히 농촌출신 여성들이 과거 미혼 시기에 경험했던 공장노동의 경험이 중국식 통치성의 작용과 맞물리면서 현재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본 논문의 바탕이 되는 현지조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판룽촌(繁榮村)에서 이루어졌다.²⁾ 판룽촌이 수도 베이징에서 “모범촌(模範村)”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마을을 다른 지역의 성중촌(城中村)들과 크게 구분되게 하였다. 1990년대 들어 고속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도시 중심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면서 많은 수의 도시들은 지리적 팽창을 거듭한다. 성중촌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 기존의 도시 저소득층의 거주지를 일컫는 명칭인데, 도심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한 성중촌들은 농촌주민들의 도시 이주가 본격화된 이래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농민공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정종호 2008: 45; 謝志巋 2005: 39; Zhang, Zhao, and Tian 2003: 913). 때로 기존 거주민들의 3배가 넘는 농촌출신 이주

2)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된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시와 성을 제외한 지명 및 인명들에 가명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민들이 거주하는 성중촌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불안한 치안상황으로 인해 빈곤과 일탈 그리고 각종 범죄의 상징으로 간주된다(Siu 2007: 330-340).

조사가 이루어진 판룽촌은 베이징 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성중촌으로 분류되지만, 이 마을의 실제 상황은 기존 성중촌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났다. 중국 역사에서 베이징이 지닌 “모범적 중심(exemplary center)”의 지위에 걸맞게, 시 정부는 판룽촌이 기존의 성중촌들과 다른 성공적인 변화의 사례가 되기를 희망했다. 시 정부 이하 각급 정부는 “모범적 중심”의 이상에 따라 마을의 상업 지구를 재정비하고 촌민들을 위한 새로운 거주지를 건설했으며, 마을면적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농토 및 녹지를 유지·관리함으로써 마을의 “생태문명촌(生态文明村)”으로서의 지위를 부각시켰다. 또한 촌 정부는 상급정부의 지원을 받아 두 개의 촌 산하 기업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마을 밖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50여 호에 달하는 농민 가구들이 특화된 상품작물 재배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인민공사(人民公司)로서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촌민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려는 판룽촌 정부 그리고 상급 정부기관들이 노력은 “경제적 변혁 과정에서 인민이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Liew 2005: 335). 그러나 한편 모범촌의 이상은 지역 호구를 지니지 않은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억압적 감시를 정당화하였다. 안정적인 치안의 확보가 모범촌 건설의 이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촌 정부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 방범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들을 직접적이고 억압적으로 감시하였다.

판룽촌의 이주민 인구는 2013년 조사 당시 전체 마을 인구(약 3,900여 명)의 약 40%인 1,500여 명에 달하였다. 일용 건설직, 가사도우미, 식당종업원과 같은 저소득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은 상대적으

로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구할 수 있으며,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형성된 상업 및 거주지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룽촌을 거주지로 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조사대상이 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 농민공들은 판룽촌에 거주하는 1,500여 명의 농촌출신 이주민들 중 약 30%(450여 명)를 차지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가속화된 도시중심 경제발전으로 베이징에는 새로운 중산계층과 부유층이 형성되었고 이는 외식업과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수요를 폭증시켰다(Yan 2008: 57-108).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남편들과 함께 월세 집에 거주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외곽지역에 위치한 판룽촌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주비용은 농촌출신 이주민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되었다.

이들 여성 농민공들은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녔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6개 성(省)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중 베이징에서 비교적 가까운 허베이, 허난, 산둥성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같은 성 출신 중에서는 성 내의 비슷한 지역, 즉 동일한 현이나 촌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베이징 외곽에 거주하는 농촌출신 여성들이 대부분 저임금의 단기계약직 혹은 일용직 서비스산업, 특히 가사도우미나 식당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직업의 특성상 이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상경하였고,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인접지역에 모여 사는 거주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출신지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판룽촌에 거주하는 농촌 출신 여성들은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여성 농민공들의 80% 이상은 미혼 시기에 평균 6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공장 노동자로 일했으며, 이는 자기규율적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조사 당시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연령대에 속한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에 해당되는 미혼 시기에 장기간에 걸친 공

장노동과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결혼과 더불어 귀향한 후 신혼과 출산 시기 그리고 자녀의 영유아기를 농촌에서 보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까지 걸친 오랜 임금노동의 경험은 여성 농민공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소득이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미래 생활을 설계하는 데 지니는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였으며, 이는 이들이 당시 가혹한 노동조건과 엄격한 노동통제를 감내하면서 일하게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임노동의 경험은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비판의식과 불만이 보다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과거 생산과정은 물론 일상생활까지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 했던 공장체제 하에 일했던 공장노동자 시절을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보다 “자유로운” 현재의 생활과 대비하면서, 농민공들에 대한 도시의 억압적 감시체제와 차별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 임노동의 기억이 여성노동자들의 자기규율적 혹은 순응적 주체성의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사대상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전 도시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 부분에서 “다공(打工)”³⁾을 경험한 남편들의 상당수가 결혼 후에 다시 도시로 나가 일했던 반면, 여성들은 결혼 이후 상당기간 농촌에 머무르면서 영농에 참여하거나 소규모 식료품 가게 또는 옷 수선 등의 부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편과 달리 농촌에 머물게 된 주요 이유는 가까운 친정과 시가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많은 농촌 여성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도시로의 재이주와 “다공”을 결정하였는데, 미혼 시기 공장노동자로 일했던 이들에게 있어 도시지역 서비스업종이 소규모 영

3) “다공”은 일반적으로 “보스를 위해 일하기” 또는 “(나의) 노동력을 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개방 시기에 나타난 임금과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교환, 즉 노동력의 전면적인 상품화를 반영하는 표현이다(Lee 1998: 110).

농에 대해 지나는 경제적 우월함이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은 “다공”을 결정하게 된 다른 이유들로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落后)”된 농촌 생활, 도시의 소비문화와 익명성, 그리고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도시지역에서의 노동과 생활의 경험이 이들 농촌출신 여성들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관찰을 위주로 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보다 잘 파악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초기인 2012년 여름 판룡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으며, 이를 통해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들이 연구 대상자들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참여관찰 초기 연구자의 한국인이라는 신분이 중국인 노동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지만, 이는 연구자가 이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점차 극복될 수 있었다. 이 시기 형성된 노동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이들의 고향이 위치한 허난성에 대한 추가조사를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판룡촌 거주 농민공들과 고향의 가족, 친족 및 이웃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본격적인 현지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2014년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지속할 수 있게 하였다. 추가 조사에서는 농촌출신 노동자들 그리고 현지주민들과 전자우편, 전화 통화 그리고 직접면담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이 결혼과 사직, 출산과 양육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였다.

3. 마을공간의 요새화와 일망 감시체제의 형성

조사 당시 판룡촌은 마을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는 농토와 초지, 그리고 촌 정부 소유의 두 개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민공사의 형태

를 지니고 있었다. 이 사실은 여성 농민공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제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판룽촌에서 농촌 호구(戶口)를 지닌 이주민의 비중은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조사 당시 마을 총인구(약 3,900여 명)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촌 이주민구는 기존 마을주민들이 가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였고, 촌 정부 관리들은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편 지역 호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민공들에 대한 행정상의 차별과 일망감시체제의 구축을 치안유지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특히 촌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주민들의 촌 내 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이를 통해 이들이 도시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였다.⁴⁾

판룽촌 정부 관리들과 주민들은 마을에 거주하는 농촌출신 이주민들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베이징 호구를 지닌 2,300여 명의 마을주민들 중 약 80%는 자신들이 이전에 살던 구식가옥(平房)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들 노동자들에게 빌려줌으로서 고정적인 월세수입을 확보했는데, 이는 주민 평균 월소득의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로 가계 소득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시에 “외지인”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이들은 한편으로 농촌 출신 세입자들에 대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따라서 “차별은 없다”고 하면서도,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외지인”들의 존재가 마을의 치안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판룽촌의 치안은 안정되어 있었으며 최근 몇 년간은 단 한 건의 강력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수 마을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사건과 “농촌 출신 외지인”들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판룽촌에 거주하는 남성 농민공들의 상당수가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

4) 판룽촌뿐 아니라 베이징 시 정부 산하 각급 정부들은 외지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각종 지방 조례와 규칙들을 발표하였다.

감을 증폭시켰다. 50세 마을 여성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을 다음처럼 표현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잘 모르는 외지인 노동자와 마주치면 웬지 무섭다고. 망치, 삽, 꼬챙이 같은 연장들 말이지…건축 일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저 건장한 남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휘두른다고 생각해 봐. 무섭지 않겠어?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의 “공동체화(社区化)”는 마을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판룽촌의 상급기관인 구(区)정부는 “공동체화”의 첫 목표로 녹화(绿化)와 환경미화를 꼽았으며, 촌 정부는 상급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녹지정비와 공원 조성 그리고 촌 내 과수원의 관광상품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촌 정부의 입장에서 “공동체화”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환경미화가 아니라 보안시설의 강화를 통한 마을 공간의 요새화에 있었다. 이 변화는 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 처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데, 기존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방 정부 또는 주민들 스스로가 각종 감시의 기술과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거주 공간을 외부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불안감은 외부에서 새로 유입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경계심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경계심이 결국 각종 감시수단의 설치를 통한 생활공간의 “요새화”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Caldeira 2000; Davis 1999). 판룽촌의 관리들은 마을 치안에 대한 위협이 항상 외부, 즉 “외지인”으로부터 온다는 마을주민들의 시각을 공유하였으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의 경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감시카메라와 감시초소의 설치와 같은 공간의 요새화는 베이징의 다른 성중촌들에서도 진행되었다(박민희 2010; 陈文定 2011; Gao 2010). 이 경우 공간의 요새화는 이주민이 마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상급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이주민이 마을 인구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는 판롱촌은 요새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판롱촌 정부는 일정 기간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마을에게 주어지는 “평안공동체(平安社区)”의 평판을 얻는 것이 모범촌의 지위 유지에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런 맥락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요새화를 추진하였다. 촌 정부는 자체 재정과 상급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전체를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는 작업을 실시했는데, 촌 관리들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울타리가 방법과 치안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생태문명촌”으로서의 판롱촌의 이미지에 걸맞는 “심미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또한 촌 정부는 주변의 다른 마을들에 비해 배 가깝게 많은 감시카메라를 촌 경계 요지에 설치하였고, 촌 내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들에 감시초소들을 설치해 왕래하는 차량과 사람들을 24시간 관찰하게 했다.

촌 경계의 강화와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감시체제는 무엇보다 농촌 출신 이주민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촌 정부는 기존 공안분국(工安分局)의 치안과 순찰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체 재정을 활용하여 마을주민들로 이루어진 50명의 공안협조관리대오(公安协管员队伍: 이하 “공안협조대오”)를 창설하고, 이들에게 24시간 운영되는 마을 주요지역의 초소들을 관리하고, 매일 마을을 순찰하며, “수상한 인원” 및 농민공 기구에 대한 불시검문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안협조대오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대신하여 비어있는 임대용 주택들의 내부를 포함하는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불시검문에서 검문대상이 된 “수상한 외지인”이 합법적 서류에 필요한 서류⁵⁾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들에게 벌금을 징수하며, 이들의

5) 조사 당시 이주민들이 합법적 도시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로는 임시거주증(暂住证)과 호구증(户口本) 그리고 인구계획생육증명(人口计划生育证明)이 포함되었다.

언행이 “특별히 불량할” 경우 마을 공안국에 구금할 권한을 지녔다. 수상한 언행과 불량한 외모를 주요한 검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표현(表現)”을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직결시키는 사회주의 혹은 마오 시기의 정치관행(Walder 1988: 132-147)과 연결되며, 공안협조대오가 농민공들에 대해 행사하는 직접적, 강제적, 자의적 통제를 정당화시키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공안협조대오가 판통촌 거주 농민공들에 대해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감시와 검사를 행하는 데에는 이들이 마을주민으로서 농민공들에 대해 지닌 부정적인 선입견뿐만 아니라, 60대 초반인 공안협조대오의 책임자를 비롯하여 10여 명의 구성원들이 군대(人民解放军)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들은 매일 마을 입구의 공터에서 낮 근무자와 밤 근무자의 교대식을 행하였는데, 군대식 점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는 농민공들에게 이들의 위협적인 존재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지녔다. 공안협조대오의 기능은 2014년 베이징 공안국이 성중촌의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속파출소(直屬派出所)”를 설립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安然 2014).

고해상도 카메라와 고속인터넷과 같은 기술수단은 공안협조대오로 대표되는 농민공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통제의 기제와 결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촌 정부는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신축아파트 단지의 경계에 10대의 고해상도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외지인의 침입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임대업을 하는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최근 마을에 도입된 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세입자의 변동을 보고하게 하였다.⁶⁾ 촌 정부는 마을지도에 관내의 모든 임대주택들의 위치를 표시하여 이주민들의 분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세입자의 변동이 보고될 경우 공

6) 촌 정부는 2015년 초까지 촌 전역에 설치된 기존의 저해상도 감시카메라들을 고해상도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안협조대오를 파견하여 실제 변동 상황과 새로운 농민공 세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다.

관통촌에 거주하는 농촌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제는 중국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이주민 포용정책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정부를 비롯한 상급정부기관들은 농촌주민들이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했으며, 직장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北京市劳动和社会保障局 2001, 2004; Liang 2001). 이러한 시책에 따라 관통촌 정부는 농촌출신 노동자들의 임시거주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촌 유아원시설과 촌 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외지인”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여전히 촌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마을 경계의 강화와 출입 통제, 임대주택과 세입자의 전출입에 대한 실시간 관리는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처럼 촌 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촌집체의 성격을 지닌 성중촌이 기존 도시행정 및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일정한 행정상의 자율을 누릴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Zhang et al. 2003: 928). 행정상 도시에 속하지만, 성중촌 주민들은 시 정부에서 구(区) 정부, 그리고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행정체계가 아니라 구 정부에서 농촌조직인 향(乡) 정부 그리고 촌민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체계의 관리를 받았다. 따라서 성중촌 주민들은 일반 도시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복잡다단한 법률이나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는데, 기존 가옥의 개·증축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촌 정부의 약식 허가를 통해 쉽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公安협조대오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외지인”들을 억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성중촌이 지닌 이러한 행정상의 특별한 지위에 크게 힘입었다. 또한 마을 관리들은 자신들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월급 역시 마을 재정에 크

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되었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유지하게 되었다.

농촌출신 이주민들은 공간협조대오를 비롯한 촌 관리들이 감시카메라를 자신들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한 농촌출신 여성은 자신이 겪은 불쾌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그들 [촌 관리들이] 카메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인지 촌 부녀회 여자가 찾아온 거야. 가족계획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잘 모르는 사이였지. 그날도 가족계획을 잘 지켜야 한다는 등 ...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길가에서 아이 오줌을 뉘 적이 있냐는 거야. 생각해 보니 언젠가 유아원에 맡겨놓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중에 길가에서 오줌을 누게 했지. 그런 것까지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농촌출신 이주민들은 마을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노상방뇨와 같이 작은 공중도덕을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카메라가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마을사람들의 위반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마을 관리들은 오직 “외지인”들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실제로 한 마을관리는 연구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카메라를 통한 감시의 주요 대상이 기존 마을주민들이 아닌 이주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표적 감시는 교육수준이 낮고 덜 “문명화”되어 있는 이주민들이 규율을 위반하고 공중질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마을관리들이 감시카메라를 통해 심지어 어린아이의 노상방뇨까지 관찰하고 이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은 곧 많은 이주민들에게 알려졌고, 따라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주민들은 특히 카메라가 설치된 초기에 마을길을 걸어가다가 카메라의 위치를 문득 확인해 보곤 했으며,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민들은 카메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지만, 이는 오직 이들이 스스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감시자들이 주목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 이후의 일이었다.

감시카메라와 함께 설치된 스피커는 “외지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효과를 강화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광장은 날씨가 좋은 저녁이면 사람들로 붐볐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퇴근 후 일정한 여가거리가 없는 농촌 출신 이주민들이었다. 대략 밤 7시 전후부터 광장은 가벼운 공 던지기와 집단 사교춤 등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변했다. 밤 9시가 되자 판룡촌 공안국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여가활동시간이 끝났음과 동시에 광장을 떠날 것을 알렸다. 단 한 명의 공안협조대오 요원도 광장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주민들로 가득 찼던 광장이 텅 비는 데에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 때 연구자와 동행했던 농민공이 반농담조로 말했다.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마. 조용히 떠나면 돼. 그들이 지켜보고 있거든.”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이를 둘러싼 작은 사건들, 그리고 이주민들의 촌 정부 관리들에 대한 반응은 일망감시체제하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이 감시체제 하에서 권력은 피감시자의 행동을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반면 피감시자는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언제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불안감은 피감시자들로 하여금 규율을 내재화하게 하고, 권력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규율에 맞춘 행동을 하게 한다(Foucault 1995[1977]: 195-228). 판룡촌 관리들은 마을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녹화기록을 통해 언제든지 마을주민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카메라의 관찰대상이 된 주민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관리들의 일상화된 감시와 관리에 실제로 노출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촌 출신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마을 관리들의 차

별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감시 수단은 전체 마을주민들이 아닌 이주민들에게 자기규율의 권력효과를 미치게 되었다.

4. “자유”와 “작은 행복”의 추구: 감시의 역설

1) 가사도우미의 “자유”와 억압적 공장노동의 기억

역설적으로, 판릉촌에서 인터뷰한 여성 농민공들이 자신의 현재 생활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은 “자유”였다.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 중 80% 이상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연결된 도시 중상층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 가사도우미의 구직 및 노동과정은 개인적으로 진행되며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감시나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여성 농민공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고용주로부터 노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더라도 일을 잘 하는 “믿을 만한” 가사도우미라는 신뢰를 얻게 될 때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여성 농민공들이 직업소개소 그리고 집주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개인적 신뢰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고소득·전문직 일자리를 통해 부유하게 된 베이징의 중상층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은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으며, 농촌출신 기혼여성들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王瑾 2008; 肖春来 2011; Yan 2008: 57-108). 도시 중상층 고객들과 여성 농민공들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고 둘을 연결시

켜 주는 소개소의 중개역할은 여성 농민공들로 하여금 직업소개소의 책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쓰게 하였다.⁷⁾ 노동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가사도우미 시장에서 직업소개소 책임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 농민공들은 구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직업소개소도 신뢰할 만한 여성 농민공의 확보가 단골고객 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직업소개소의 운영은 비슷한 사회연망과 지위를 공유한 고객들 사이의 입소문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고, 따라서 신뢰할 만한 가사도우미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을 잘 관리한다는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직업소개소들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농민공들과의 관계를 개별적 형태로 유지했는데, 이는 가사도우미들 사이에 형성될 수도 있는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가사도우미들이) 서로 알게 되면 좋을 게 없지.” 한 소개소의 실무책임자가 말했다. “(소개소가) 맘에 안 든다고 한꺼번에 옮길 수도 있고 또 처우 개선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도 있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여성 농민공들은 자신이 속한 직업소개소와 연결된 여성 농민공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가사도우미들이 이웃, 동향, 혹은 친척 관계를 통해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사도우미들과 어떠한 개인적 관계도 맺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가사도우미가 집주인의 개인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사장님”의 신뢰를 얻는 것만큼 중요했는데, 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일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거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노동계약을 어느 때든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사도우미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률적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王红芳 2006; 胡晓燕 2012), 이 직업이 여전히 비정규직업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은 가사도우미 직업에 중

7) 조사 당시, 통상적으로 소개소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고객과 여성 농민공 양자로부터 가사도우미 일당의 열흘에서 두 주에 해당되는 금액(1,000~1,400위안)을 청구하였다.

사하는 많은 여성 농민공들이 직업소개소 “사장님,” 직원 혹은 집주인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형성에 더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정된 법률이 가사도우미의 권익을 신장하기보다 소개소, 직업훈련소,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양질”의 가사도우미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가사도우미 직업의 불안정성을 지속시키고 있었다(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2; 北京市家政服务协会 2015 참조).

많은 여성 농민공들은 집주인의 믿음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근본적 불안정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집주인의 개별 가사도우미에 대한 신뢰 정도는 실제 가사도우미의 노동과정이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와 감시 속에 이루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속되는 가사도우미의 노동과정은 직업소개나 계약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사도우미들은 처음 며칠 혹은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집 안에 머무르는 집주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지만,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사도우미들에게 집주인의 직접적인 감시의 눈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보다 “자유롭다”고 보는 시각을 강화하였다.

여성 농민공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의 형성은 이처럼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집주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들의 믿음에 크게 의존하였다. “모든 것은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가사 도우미 7년 경력의 하이옌(38)이 말했다. “하기에 따라서 (가사 도우미 노동과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지.” 성실한 노동을 통해 점차 집주인의 신뢰를 얻고,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집주인이 집을 비울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적어도 이 시간 동안 도우미들은 “자유롭게” 된다. 하지

만 동시에 여성 농민공들은 집주인의 부재(不在)가 청소나 정돈을 대강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자신에 대한 신뢰는 청소와 정돈상태의 만족스러움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집주인의 부재 이후 청소와 정돈상태가 다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에 대한 집주인의 신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가사도우미들은 집주인의 부재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해야 했으며, 이는 개인화된 계약 및 노동관계와 맞물리면서 자기책임과 자기규율에 익숙한 가사도우미로서의 주체성 형성으로 이어졌다.

가사도우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여성 농민공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의 현재 직업이 실제로 상당 정도 자유롭다거나 더 수월하지는 않았다. 노동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주인과의 신뢰관계의 구축 및 유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청결”과 “정돈”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이 농민공들에 대한 도시주민들의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의심과 맞물리면서 비롯되었다. 직업소개소에서 도시 고객들이 원하는 청결과 정돈의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기는 했지만, 실제 가사도우미의 노동과정에서는 도시 거주민인 집주인과 농촌 출신 가사도우미 사이의 청결과 정돈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치로 인해 종종 불만과 갈등이 초래되었다. 일단 구축된 신뢰관계도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임금수준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여성 농민공들은 새로운 고객과 처음부터 다시 신뢰관계를 쌓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주어진 시간 내에 청소 및 정돈을 끝내야 하는 가사도우미의 업무는 상당한 강도의 지속적인 노동을 요구했다. 거실과 부엌, 둘 또는 세 개의 방, 하나 또는 두 개의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각종 가구들을 닦고 정돈하며 세탁물까지를 처리해야 하는 일은 가사도우미들에게는 점심식사 시간과 두세 번의 짧은 휴식을 제외하고는 쉼 없이 계속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여성 농민공들은 특히 여름의 작업을 힘겨워했는데, 이는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기가 켜지지 않은 집 안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었다.⁸⁾ 세탁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오랜 가사노동은 여성 농민공들의 손목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었으며, 특히 가사도우미의 경력이 긴 농민공들은 각종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 가사도우미들의 30% 정도는 각종 피부질환이나 안과질환 증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이들의 정체성, 특히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사도우미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청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청소에 세척력이 강한 세제를 사용했는데, 이 세제들은 눈과 코 그리고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을 포함하였다. 특히 피부의 발진은 상당 기간 가사도우미 일을 쉬어야 가라앉을 정도로 지속되기 때문에 여성 농민공들은 자신들의 피부가 가장 깨끗할 때는 오직 두 주 정도의 춘절 휴가에 다녀왔을 때라고 이야기하고는 하였다. 피부의 발진은 잦은 가사노동으로 거칠어진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강한 세제의 냄새는 가사도우미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여성 농민공들 대부분은 출퇴근 때에는 정장 옷을 입었고, 작업복은 따로 가지고 다녔는데, 이는 “피죤피하고 냄새나는 가사도우미”를 “깎보는 시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옷 좀 봐.” 가사도우미 5년 경력의 한 여성 농민공이 출근하기 위해 정장 차림을 한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때? 화이트 칼라(百領階級)같지 않아?”

가사도우미 직업의 고된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민공들이 가사도우미 직업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들

8) 가사도우미들은 자신들이 냉방기를 켜고 작업할 경우 집주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연구자가 면담한 한 집주인은 “(가사도우미들이) 일하러 온 거지 피서하러 온 것이냐”고 말하면서 가사도우미들의 냉방기 사용에 반대하였다.

의 80% 이상이 과거 미혼의 시기에 기숙사 중심 공장체제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 그리고 처벌에 노출된 채 생활하였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성 농민공들은 현재 자신들의 가사도우미 직업이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결혼 이전에 공장노동자로서 짧게는 오년에서 길게는 십년 이상 일했던 공장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들은 이 작업장들 대부분이 “흑공장(黑工厂)”이었다고 회상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 여성 농민공들이 주로 일했던 공장들을 묘사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강압적 노동통제와 낮은 임금, 잦은 잔업과 임금체불, 친경영적 지방정부 관리들의 노동통제, 지역사회의 편견과 “깡패”들의 위협 등의 특징을 지닌다. 2000년대 초·중반 산둥성 칭다오 지역 의복 공장에서 일하였던 권리(35)는 당시 자신들의 생활이 작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제대로 된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통제된 것이었다고 기억했다. 권리에 따르면 당시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여성 농민공들은 촌 정부 관리들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놓인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심지어 작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였다. 밤 9시 이후의 통행금지, 매일 저녁 진행되는 점호, 그리고 기숙사 일제 소등의 관행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끊임없는 감시와 처벌의 기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거주형태는 일반적으로 경영진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노동력의 재생산, 즉 휴식의 과정까지도 경영진의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노동일의 연장”(Harvey 2010: 145)을 목표로 하는 기숙사 중심 공장체제의 주요한 특징이었다.⁹⁾

구체적인 통제의 기제와 생활조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판롱

9) 재고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반응에 보다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기납입방식(Just-In-Time) 생산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해야 하는 긴급주문(rush order)이 증가했다(Pun and Smith 2007: 30-33). 공장 경영진이 긴급주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력의 확보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수의 노동자가 공장기숙사에서 단체로 생활하게 되었다.

촌의 여성 농민공들은 미혼 시기에 공장노동자로 일하였던 자신들의 생활이 생산과정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일상생활까지도 포괄하는 공장 경영진과 촌 정부의 직접적, 전면적, 억압적 통제 하에 놓여 있었으며, 따라서 개인적 자유시간이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데 동의하였다. 당시 이들은 공장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기여하고 결혼을 포함한 자신들의 미래의 생활을 설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힘든 노동과 억압적인 노동통제를 참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특히 이들이 일했던 공장들이 위치했던 지역의 말단 관리들과 “깡패” 또는 폭력조직으로 대표되는 지역주민들은 기숙사 관리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장 밖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농민공들을 통제하였다. 지역 관리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했으며, 자신들의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들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 이용료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Kim 2013: 167-180). 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를 통한 세수확보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촌 정부를 비롯한 말단 관료들이 평소 노동통제를 통해 노동쟁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실제 노동쟁의 상황에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쟁의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촌, 향 또는 구 정부와 같은 말단 정부조직을 필두로 한 지역감시체제(local surveillance)가 지지하는 공장체제의 전면적, 직접적, 억압적인 관리와 통제 하에서, 당시 농촌출신 여성들은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의 부양과 자신들의 보다 나은 미래 설계에 필수적인 일정수준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의 저항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대신 개별 사업장으로 국한된 단기간의 소규모 파업(wildcat strike)을 시도하거나 규율을 따르면서 “적절한” 소득을 확보하는 쪽을 택하였다(Chan 2010: 164-173; Kim 2013: 191-222; Lee 1998: 141-144). 이는 여성 농민공들로 하여금 노사간 위계를 암묵적으

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금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 시기 많은 작업장들이 개인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성과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공개적 저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여성 농민공들 사이에 “적절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하는 경향을 더욱 강화하였다.

공장노동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공유한 여성 농민공들은 가사도우미의 일이 “주어진 시간에 청소며 빨래만 잘 하면” 누구도 크게 간섭하지 않으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하루나 이틀 일이 없는 날은 쉬어도 되는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공장노동자보다 낫다고 단언했다. “모든 것이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여성 농민공의 앞서의 언급에서처럼, 현재 가사도우미의 직업은 노동과정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공장노동자 생활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자유”의 여지를 제공해 주었다. 여성 농민공들은 가사도우미로서 집주인의 충분한 신뢰를 확보한 경우 감시 없이 일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작업의 세세한 부분까지 감시받고 통제 당했던 미혼의 공장 노동자 시절보다 분명히 자유롭다고 느꼈다. 조사 당시 이들 중 일부는 마땅한 고객과 연결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주변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지만, 가사도우미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그만 두었다. “니 같으면 또 [공장에] 들어가고 싶겠어?” 결혼 전 광동성 동관의 한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일했던 30대 후반의 여성이 말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지긋지긋하다고.”

2) “작은 행복”의 추구하고 순응적 주체성의 형성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은 판룡촌의 요새화된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억압적 감시체제와 차별적 정책,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힘든 노동과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와 노동과정에서의 “자유,” 그

리고 “낙후”된 농촌에 비해 우월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이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도시지역에서의 장기간의 체류를 통해 형성된 이들의 도시생활에 대한 선호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는 도시에서의 임금노동과 생활의 경험이 이들의 주체성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단절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 여성 농민공들은 1990년대 후반 경부터 주로 도시에서 임금노동자로 생활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공장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해 오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현금소득이 농촌가계는 물론 자신들의 생활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관찰해 왔다. 또한 이들은 동일 기간 증가하는 도농 간 격차로 인해 갈수록 피폐화되는 농촌의 모습을 목격해 왔다.¹⁰⁾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의 90% 정도는 자신들의 출생지로서의 농촌이 미래에 돌아갈 정착지가 아닌 가난하고 낙후된 공간이며 따라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도시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990년대 후반 광둥성 동관의 완구공장에서 농민공의 긴 경력을 시작한 한 가사도우미는 농촌은 이제 “‘다공’을 할 수 없는 노인, 어린이, 아니면 병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이들을 제외하면 “거의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농민공 부부들은 싼 월세로 베이징 시내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적 공간에서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생활하였다.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은 오래된 농가주택으로, 기존의 판룽촌 주민들이 새로 건축된 아파트(樓房)로 이주하면서 임대용으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집주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임대 전용주택들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누수나 균열의 문제가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의 단열효과가

10) 중국의 증가하는 도농 간 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학술자료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沈凌·田国强(2009) 참조.

낮아 특히 혹서기와 혹한기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농민공들은 힘든 생활을 해야 했으며, 건설부분의 일용노동자로 일하는 남성농민공들은 자비를 들여 최소한의 도배, 도장 및 보수공사를 하기도 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판룽촌에 거주하는 부부 농민공들의 80% 정도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부 모두 하루 종일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취학 어린이들은 농촌에 남겨져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신경 써야 할 청소년들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높은 사교육비와 물가, 지역 호구를 지닌 거주민들에 대한 베이징 교육기관의 우대정책도 농민공 부모가 자녀와 따로 거주하게 되는 데 기여했다.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베이징에서의 생활은 이들 스스로 “다시 찾은 신선”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배우자와의 친밀감 유지와 표현에 집중되었다. 여가시간에 마을에서 멀지 않은 관광지나 상가를 찾거나 다른 부부들과 함께 노래방이나 마을의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월세주택을 부부간 특유의 친밀함이 표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간주했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 농민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침 8시쯤 출근해서 저녁 5시나 되어야 돌아와. 하루 종일 청소며 빨래며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해. 남편도 새벽같이 [건설현장으로] 나가면 6시에 올 때도 있고 하지만 일단 집에 들어오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고향에서처럼 남의 눈치 볼 일도 없고, [고향에 있으면] 친지며 이웃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그게 싫어서 밖에 안 나가면 또 왜 잘 안 보이냐고 쑈군댄다고.

판룽촌에 거주하는 농촌부부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친밀감의 중요성은 “개인화”(Ong and Zhang 2008: 1-20; Yan 2009:

273-291) 또는 “부부간 유대의 승리”(Yan 2003: 64-85)로 언급되는 사회관계와 그 가치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영한다. 현대중국의 가족과 친족 혹은 농촌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젊은 세대일수록 배우자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확대가족, 효도, 근검성과 같은 농촌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점차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판룽촌의 농민공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유”의 추구가 모든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절반 이상의 소득을 고향에 있는 부모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 및 교육비로 송금했으며, 여성 노동자들은 컴퓨터를 구입해 고향의 아이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은 춘절 연휴기간 혹은 아이들의 방학 때로 한정되었으며, 여가의 많은 부분은 배우자와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여성 농민공들은 가사도우미나 식당종업원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작은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지속하는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런 만큼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들은 촌 정부의 공안협조대로 그리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와 차별적 정책은 의심할 여지없이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 농민공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가능하게 하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였다. 판룽촌에서 가사도우미로 7년째 거주하는 춘메이(38)는 현재 생활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바깥세상은 복잡하고, 일은 힘들지. 더운 여름에 냉방기를 켜지도 않고 하루 종일 도우미 일을 하고 나면 온 몸이 땀에 젖어버려. 하지만 일단 집에 돌아와 대문을 닫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아. 집에 와서 씻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남편하고 TV를 같이 보면서 같이 웃고 이야기하고…더 여유가 되면 가까운 상가에 가서 구경도 하고, 어둑어둑해지면 광장에 나가 춤도

추고…고향에는 아무 것도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한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구.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은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일상생활이 생산과정뿐 아니라 기숙사 생활까지 전면적으로 통제받았던 공장 노동자 시기의 일상과 비교할 때, 분명히 더 자유로운 것으로 인식했다. 때로 공안협조대오의 불시검문이 있기는 했지만, 임대주택의 출입문과 부부만이 거주하는 방문을 닫을 때 확보되는 사적 공간은 감시카메라의 일망감시와 이웃 마을주민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웠다. 이들에게 촌 정부의 “외지인”들에 대한 정책과 감시의 체계들이 지닌 부당성은 자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도시생활이 이들에게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유 그리고 다채로운 소비와 여가의 공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놀랍게도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 중 약 70%는 판룽촌이 다른 이웃 마을들보다 더 “안전하다”는 점에서 만족하며, 앞으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여성 농민공들이 스스로 마을 관리들과 주민들의 감시와 편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감시체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긍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을 정부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한, 감시와 통제의 기제로부터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기제는 마을의 치안을 안정시켜 이들 농촌부부들의 “작은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성 농민공들은 월세로 얻은 거주 공간 안에서 개인적 자유와 부부간 친밀감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했으며, 저임금 노동을 통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한 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은 중국 도시지역에서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농민공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권력의 기제들과 이에 대한 농민공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자들의 자기규율적, 순응적 정체성의 형성을 관찰하였다. 기존의 중국 여성 농민공들에 대한 연구들은 공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장체제의 작동기제와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Lee 1998; Pun 2005).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농촌출신 여성들이 공장노동과 기숙사 생활의 시기를 넘어서 결혼과 사직 그리고 출산 이후에 겪는 장기간의 변화를 이들의 도시에서의 생활과 노동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베이징 판룽촌에서 공안협조대오와 감시카메라에 기반한 감시와 처벌의 체제가 가사도우미 직업의 개인화된 노동관계 그리고 여성 농민공들의 개인적 “자유”와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 추구하고 맞물리면서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베이징 판룽촌의 기혼 여성 농민공들은 베이징에서의 도시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데 집착하면서도 공장노동에 비해 더 “자유로운” 형태의 직업을 선호하였다. 이들은 미혼 시기 공장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따라서 엄격한 공장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제조업 노동에 비해 낮은 노동강도와 느슨한 감시방식을 지닌 가사도우미 직업이 “자유롭다”고 주장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 농민공들의 “자유”와 배우자와의 친밀감 추구가 농촌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촌 정부의 강화된 통제 하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공안협조대오로 대표되는 기존의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감시와 통제의 기제는 실시간 감시카메라와 인트라넷을 통해 작동하는 일망감시체제와 결합되어 마을 거주 농민공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시기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의 전략과 “원거리 통제”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결합된 현대 중국의 통치성 (Greenhalph and Winckler 2005: 134; Jeffreys and Sigley 2009: 5)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여성 농민공들이 추구하는 개인적 “자유”와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의 바탕이 되는 도시생활이 지속 가능한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조사 대상 여성 노동자들 중 80% 정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는데, 그 이유로 농촌의 “낙후”된 생활수준과 낮은 농산물가격 그리고 개인적 자유가 제한된 농촌 생활 등을 들었다. 그러나 촌 정부의 농촌 이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정책과 감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도시의 생활물가에 비해 정체되거나 소폭 인상하는 데 그치는 소득, 그리고 저임금 서비스 직업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은 여성 농민공들이 도시 정착의 꿈을 이루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성중촌의 재개발 사업은 이들 농민공들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구식가옥들의 철거로 이어졌고, 이 경우 농민공들은 재개발이 되지 않은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거듭해야 했다(Fang and Zhang 2003; Smart and Zhang 2006; Zhang 2002; Zhang 2006). 조사 당시 판룽촌에서도 몇 년 안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며, 이는 이미 재개발에 따라 몇 차례 이주해야 했던 농민공들의 불안과 불만을 자극하였다. 많은 농민공들은 판룽촌의 구식가옥들이 철거될 경우 자신들은 “베이징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고 푸념하고는 했다.

농민공들의 도시생활이 지닌 이와 같은 근본적인 불안정성은 이들에게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촌 거주민도 아니며 시민으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누리는 도시 거주민도 아닌 주변적(liminal) 주체성을 만들어 냈다. 노동주체로서의 여성 농민공들에게 자기규율적, 순응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중국적 통치성의 시도는 동시에 농민공들에 대한 직접

적·억압적 감시와 차별적 정책을 유지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차별적 감시와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을 지속시켰다. 조사대상 여성 농민공들은 자신들의 도시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불안정하고 고된 일용직 노동, 촌 정부의 차별적 감시와 처벌의 기제,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철거와 강제이주의 경험이 초래한 뿌리 깊은 불안과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농민공 부부들의 현 생활에 대한 만족은 이들이 “적절한” 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건설 및 서비스 일용직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해당 경제부분의 침체는 이들의 도시생활 기반을 약화시키고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건설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베이징 시내 건설 경기는 일시적으로 냉각되었으며 이는 일용직 건설부분에 종사하는 남성 농민공들의 임금체불, 정체, 심지어 삭감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난 여성 농민공들의 남편들은 일감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베이징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 했다. 특히 이들의 귀향을 앞둔 춘절 시기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가 자주 발생하였다. 비록 체불임금의 지급이라는 제한된 목표 하에 소규모의 개별화된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농민공들의 불만 표출은 중국적 통치성이 창출하고자 하는 자기규율적 노동주체가 지닌 주변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주변성이 중국적 통치성의 효과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24일, 논문심사일: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3일

참고문헌

정종호

- 2008 “북경시의 도시재개발 정책과 북경 ‘동향촌’의 변화,” 『현대중국 연구』 9(2): 37-79.

肖春来

- 2011 “‘保姆荒’引发的关于保姆权益保护问题的探讨,” 『商业经济』 20: 23-24.

沈凌·田国强

- 2009 “贫富差别, 城市化与经济增长,” 『经济研究』 1: 17-29.

謝志焜

- 2005 『村落向城市社区的转型』,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汪和建

- 2007 “自我行动与自主经营—理解中国人何以将自主经营当作其参与市场实践的首选方式,” 『社会』 27(6): 1-28.

王红芳

- 2006 “非正规就业: 家政服务员权益问题研究,” 『重庆大学学报(社会科学版)』 2: 72-78.

王瑾

- 2008 “爱心月嫂公司绩效考核体系设计研究,” 西北大学 博士论文.

陈文定

- 2011 『未来没有城中村—一座先锋城市的拆迁造富神话』, 北京: 中国民主法制出版社.

胡晓燕

- 2012 “我国家庭服务法律问题研究,” 沈阳师范大学 硕士论文.

Althusser, Louis

-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s an Investigation),” in Louis Althusser, ed.,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NYU Press, pp. 85-132.

Burawoy, Michael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Verso.

Caldeira, Teresa P. R

2000 *City of Walls: Crime, Segregation, and Citizenship in São Paulo*,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han, Chris King-Chi

2010 “Conclusion,” in Chris King-Chi Chan, ed., *The Challenge of Labour in China: Strikes and the Changing Labour Regime in Global Factories*, London: Routledge, pp. 164-177.

Chang, Leslie T.

2009 *Factory Girls: From Village to City in a Changing China*, New York: Spiegel and Grau.

Davis, Mike

1999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New York: Verso.

Fang, Ke and Yan Zhang

2003 “Plan and Market Mismatch: Urban Redevelopment in Beijing during a Period of Transition,” *Asia Pacific Viewpoint* 44(2): 149-162.

Foucault, Michel

1993 “About the Beginning of the Hermeneutics of the Self,” in Mark Blasius, ed., *Political Theory* 21(2): 198-227.

1995[1977]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Vintage Books.

Greenhalgh, Susan and Edwin Winckler

2005 *Governing China's Population: From Leninist to Neoliberal Biopolit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Harvey, David

2010 *A Companion to Marx's Capital*, London: Verso.

Jeffreys, Elaine and Gary Sigley

- 2009 “Governmentality, Governance, and China,” in Elaine Jeffreys, ed., *China’s Governmentalities: Governing Change, Changing Government*, London: Routledge, pp. 1-23.

Kim, Jaesok

- 2013 *Chinese Labor in a Korean Factory: Class, Ethnicity, and Productivity on the Shop Floor in Globalizing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Lee, Ching-Kwan

- 1998 *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 Two Worlds of Factory Wome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mke, Thomas

- 2001 “The Birth of Bio-Politics—Michel Foucault’s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on Neo-Liberal Governmentality,” *Economy and Society* 30(2): 190-207.

Liang, Zai

- 2001 “The Age of Migration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3): 499-524.

Liew, Leong H.

- 2005 “China’s Engagement with Neo-liberalism: Path Dependency, Geography and Party Self-reinven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2): 331-352.

Ong, Aihwa, and Li Zhang(eds.)

- 2008 *Privatizing China Socialism from Af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un, Ngai and Cris Smith

- 2007 “Putting Transnational Labour Process in Its Place: The Dormitory Labour Regime in Post-Socialist China,”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1: 27-45.

Pun, Ngai

2005 *Made in China: Women Factory Workers in a Global Workplac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Rose, Nikolas

1999 *Power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iu, Helen F.

2007 "Grounding Displacement: Uncivil Urban Spaces in Postreform South China," *American Ethnologist* 34(2): 329-350.

Smart, Alan. and Li Zhang

2006 "From the Mountains and the Fields: The Urban Tradition in the Anthropology of China," *China Information* 20(3): 481-518.

Walder, Andrew

1988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Yan, Hairong

2008 *New Masters, New Servants: Migration, Development, and Women Workers in Chin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Yan, Yunxiang

2003 *Private Life under Socialism: Love, Intimacy, and Family Change in a Chinese Village, 1949-1999*,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The Individualization of Chinese Society*, Oxford: Berg.

Zhang, Li

2006 "Contesting Spatial Modernity in Late-Socialist China," *Current Anthropology* 47(3): 461-484.

Zhang, Li, Simon Xiaobin Zhao, and Jie Tian

2003 "Self-help in Housing and Chengzhongcun in China's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4): 912-937.

Zhang, Tingwei

2002 “Urban Development and a Socialist Pro-Growth Coalition in Shanghai,” *Urban Affairs Review* 37(4): 475-499.

정부자료 및 신문기사

박민희

2010 “농민공 마을마다 ‘담쌓는’ 베이징,” 『한겨레신문』 2010년 7월 6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429147.html>

北京市家政服务协会

2015 “北京家政服务业行业公约.”

北京市劳动和社会保障局

2001 “北京市外来人员就业证’有关问题的通知.”

2004 “关于对部分规范性文件废止和部分内容停止执行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2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安然

2014 “北京13个市局直属派出所成立 全面管理整治 ‘城中村’,” 『北京晚报』 2014年 9月 1日, <http://www.takefoto.cn/viewnews-150803.html>

Gao, Helen

2010 “Migrant ‘Villages’ within a City Ignite Debate.” *New York Times*. October 3, 2010. http://www.nytimes.com/2010/10/04/world/asia/04beijing.html?_r=0

〈Key concepts〉: china, migrant labor, governmentality, spatial fortification, freedom, individualization

Chinese Governmentality and the Formation of Self-Disciplining Subjectivity of Labor:

A Case Study on Chinese Women Migrant Workers
in a “Model Village” of Beijing

Kim, Jaesok*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long-term experience of waged labor in the cities has affected the subjectivity of women migrant workers China. The daily operations of “Chinese governmentality” deeply affected the transformative process. Governmentality in China combines the more direct and coercive interventions of the socialist era with neoliberal strategies of “governing from a distance,” integrating the Foucauldian techniques of self into the existing structure of coercion and domination. Based on my research in an “urban village” of Beijing during the early 2010s, this study illuminates the disciplining effects of direct and coercive surveillance, spatial fortification, and individualized labor on migrant women, who were married and in their thirties or early forties. They cherished feelings of conjugal intimacy and “freedom” within thei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temporary living space in Beijing, while getting accustomed to the local government's Panoptic surveillance and the atomized labor relationship of housekeeping jobs. I explore how the migrant women's changed subjectivity of waged laborer urged the women to accept the inevitability of their unstable and low-paid labor and more or les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labor process. The Chinese governmentality, however, generated a liminal nature in the migrant women's subjectivity, which perpetuated their discontent with their unstable status neither as a full-time farmer nor as a urban citizen.